

엠폙스 위기경보수준 '주의'로 격상

- 엠폙스 환자 국내 발생 사례 증가에 따라, 대응 조치 강화 추진 -
9번째 국내 발생 추정 확진환자 발생, 역학조사 진행 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국내의 엠폙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어제 오후 5시에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였고, 금일부터 위기경보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위기평가회의에서는, 전 세계적 발생은 감소 추세이나, 일본, 대만 등 인접 국가의 발생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1주 내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전보다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확진자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으로 전파되는 질병 특성상 일반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낮고, 환자 대부분이 자연 회복되며, 치료 및 진단 등의 충분한 대응수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였다.

위기경보수준 격상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현재 운영중인 엠폙스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지자체는 확진자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주요 대응 조치>

- ◆ (역학조사) 감염원 파악을 위한 심층 역학조사로 추가 감염자 발생 조사
- ◆ (환자·접촉자 등 관리) 증상 발생 모니터링 및 밀접 접촉자에 대한 백신접종 권고 강화
- ◆ (교육·홍보) 의료진, 성소수자 커뮤니티 등 중심으로 예방수칙 안내 및 교육 실시,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 독려
- ◆ (진단·백신·치료제) 기 확보 중인 진단시약, 백신, 치료제 등으로 대응하되, 환자 증가 대비하여 필요시 추가 확보

한편, 질병관리청은 위기 평가 회의 이후, 엠폙스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확진된 9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4월 12일 피부병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엠폙스 감염을 의심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현재는 격리입원하여 치료중이며 테코비리마트 치료제 사용도 검토 중이다.

동 환자는 첫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고, 국내에서 밀접 접촉이 확인되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방역당국은 추정 감염원 등 확인을 위해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단계 조정은 미 확인된 감염자를 통한 지역사회 내 전파 억제에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지역사회 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의료진은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과, 국민들은 증상이 의심된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엠폙스

예방 및 행동 수칙

발생지역 방문자용



엠폙스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 ✓ 방문 전, 엠폙스 풍토병 지역 및 발생지역 확인
- ✓ 설치류(다람쥐 등), 영장류 등 접촉 삼가
- ✓ 동물사체 및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 엠폙스 (의심)환자와 접촉 삼가
 - 엠폙스 의심 증상(발진 등)을 가진 사람과 접촉 삼가
 - 엠폙스 의심 증상(발진 등)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 접촉 삼가



엠폙스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 자가 모니터링
- ✓ 엠폙스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상담 문의



엠폙스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 엠폙스 진단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 철저한 손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 *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